

# 녹색농촌 조성사업의 정책과제와 발전방향\*

김 호\*\*

## Policy Issues and Directions for Developing Green Tourism\*

Kim, Ho\*\*

〈 목 차 〉

ABSTRACT	IV. 녹색농촌 조성사업의 발전방향
I. 서 론	V. 결 론
II. 녹색농촌 조성사업의 정책 추진현황	참고문헌
III. 녹색농촌 조성사업에 대한 평가 및 정책과제	

## ABSTRACT

Several policy measures related to green tourism have been enforced from 2001 by Ministry of Agriculture and Forestry(MAF), Rural Development Administration(RDA), Ministry of Environment(ME) and Ministry of Government Administration and Home Affairs(MGAHA). These have to be introduced and managed of their own accord and autonomously. Also, the rural community that has been promoting green tourism must be harmonized with its natural environment, namely natural scenery and rural culture, which provide urban residents with amenity and rurality. So green tourism had better be based on

\* 이 연구는 2003년도 단국대학교 대학연구비의 지원에 의해 수행되었음.

\*\* 단국대학교 교수

environmental-friendly agriculture because it offers safe foods and areas, many creatures to see and play around. To manage green tourism sustainable, it is important for rural and urban residents to come into close relation and to trade in organic products each other. Lastly, the region bounds in green tourism have to be expanded into county(Gun) unit.

*Key Words* : green tourism, rural community, natural environment, amenity and rurality, environmental-friendly agriculture, organic products

## I. 서 론

2001년부터 녹색농촌 조성사업과 관련된 정부의 정책이 추진되고 있다. 농림부의 녹색농촌체험마을, 농촌진흥청의 전통테마마을, 환경부의 자연생태우수마을, 행정자치부의 아름답마을가꾸기 등이 그것이다. 이것은 WTO/DDA 협상 등 농업 내외적인 여건의 변화에 따른 농업·농촌·농민의 위기에 대한 대응과 주 5일 근무제 및 관광수요의 확대에 부응하기 위한 것이다. 즉 개방화시대에 농업소득 의존적 농가소득 향상방안은 점차 한계를 보임에 따라 농촌개발을 통한 농외소득의 증대방안 가운데 하나로서 녹색농촌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수년 전부터 친환경 유기농업을 지역단위로 추진하고 있는 생산자조직은 나름대로 녹색농촌을 자발적으로 만들어 오고 있는 사례도 있다. 이들은 친환경농산물을 소비자조직과 직거래하는 과정에서, 소비자와 도·농 생활공동체를 추진하면서 지속적으로 교류하고 있다. 생협 등 소비자조직은 산지방문과 농촌일손돕기, 농사체험, 자연환경학습의 일환으로 주기적으로 농촌을 방문하고 있다. 이것의 더욱 발전된 형태로서 휴양과 자연경관의 감상 등 친환경적으로 조성된 농촌에서 휴가를 보내는 소비자가 증가하고 있다. 이는 각 정부부처가 추진하고 있는 녹색농촌조성사업의 맹아이자 단초로서, 그 추진방법 및 전개방향에 관해 많은 시사점을 주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녹색농촌 조성사업에 관한 정책의 현황 및 정책적 과제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녹색농촌 조성사업의 발전방향에 대해 고찰하였는데, 그 기본적인 논리는 지금까지 자생적으로 전개되어온 도·농 생활공동체 운동의 경험에 두었다.

## II. 녹색농촌 조성사업의 정책 추진현황<sup>1)</sup>

녹색농촌 조성사업과 관련된 정책은 크게 4가지가 있다. 즉 농림부의 녹색농촌체험마을 조성, 농촌진흥청의 전통테마마을, 환경부의 자연생태우수마을, 행정자치부의 아름답마을가꾸기 등이다(〈표 1〉 참조).

〈표 1〉 녹색 농촌마을만들기와 관련된 정책사업

추진주체	사업명	사업목적 및 배경	추진현황	사업비
농림부	녹색농촌체험마을	농촌관광 활성화를 통한 농외소득 증대	44개 마을	2억
농촌진흥청	전통테마마을	자연과 조화로운 농촌생활환경 조성으로 도·농문화교류 촉진과 농가소득 증대	27개 마을	1억
환경부	자연생태우수마을	지역주민의 자연환경보전 의식의 함양과 자연자산의 자율적 보전·관리	29개 마을	없음 (보조사업 우선권)
행정자치부	아름마을가꾸기	농어촌지역의 자연환경 및 고유의 전통문화 보존	23개 마을	10~20억

자료 : 각 부처의 홈페이지

각 부처의 녹색농촌 조성사업 사업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사업대상 단위를 마을로 하고 있다는 점이다. 지역농업 및 농촌개발 범위를 마을로 하는 경우가 있는데, 마을은 자연적 및 경제적 조건이 비교적 유사한 점이 많고 생활공동체적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전통적인 인간관계와 생산활동 및 생활활동에서 합의를 도출하기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녹색농촌 조성사업이 농촌의 자연환경 및 전통문화적인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도시민에게 다양한 농촌 및 자연환경에 대한 체험기회와 볼거리를 제공한다는 관점에서 볼 때 그 범위가 너무 협소하다는 단점이 있다.

둘째, 공모방식에 의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것은 지역주민과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적인 참여의식을 높이고 사업의욕을 고취시킬 수 있을 뿐 아니라 지역특색에 부응하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셋째, 농림부와 농촌진흥청은 농촌관광 및 도·농교류를 통한 농가소득의 증대에 초점을

1) 농림부, 농촌진흥청, 행정자치부, 환경부의 자료를 주로 참고하여 고찰하였음.

두고 있고, 환경부와 행정자치부는 농촌지역의 자연환경 및 전통문화의 보전 유지를 강조하고 있다. 이는 녹색농촌 조성사업에 있어 상호보완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각 부처의 장점을 살려 사업을 차별화하고 마을의 특색을 갖출 수 있는 여건으로 작용될 수 있다고 판단된다.

녹색농촌 조성사업과 관련이 있는 각 부처 정책의 사업목적 및 추진방향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 1. 농림부의 녹색농촌체험마을

농림부의 녹색농촌체험마을 조성사업의 목적은 농촌관광의 활성화를 통한 농의소득증대를 위해 녹색농촌체험마을을 조성하고, 농업인과 농촌마을의 사업추진을 돕기 위한 다양한 소프트웨어 개발 및 정보시스템의 구축을 추진하는 데에 있다. 그리하여 농촌관광을 추진하는 마을(행정 리, 자연마을, 마을연합 포함)에 대해 마을경관조성, 생활편의시설 등 기반시설을 지원하여 도시민을 유치하기 위한 마을로 조성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녹색농촌체험지원체계 구축사업에는 농촌관광 포털사이트 보완 유지, 농촌관광 홍보, 주민 교육훈련, 농촌마을가꾸기 경진대회 등이 있다.

녹색농촌체험마을 사업의 추진방향은 다음과 같다.

첫째, 농촌의 마을을 기본단위로 사업을 추진한다. 즉 마을을 중심으로 인근 지역의 다양한 자연·문화자산, 농업 및 농촌체험활동자원을 연계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다.

둘째, 자연경관과 전통문화 등 농촌의 특색을 살린 자연친화적인 마을을 조성하고 유흥·위락 위주의 관광과는 구별되는 차별화된 여가 서비스를 제공한다.

셋째, 주민합의에 따른 마을협정과 사업계획, 시·군 또는 시·도 차원의 행정지원계획 및 전문가의 자문을 연계하여 사업을 추진한다. 이것은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관련사업을 연계하여 사업간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이다.

넷째, 농업은 물론 농·특산물의 가공·판매사업, 농가숙박, 음식물판매, 기타 농촌체험활동 서비스 제공 등 마을여건에 맞게 복합적으로 추진하도록 권장한다는 것이다.

한편 농림부가 추진하고 있는 농촌관광 및 휴양자원 개발사업 현황은 <표 2>와 같다. 녹색농촌체험마을 조성은 2002년부터 시작되었으며, 2003년까지 44개소가 추진되고 있다. 그리고 휴양단지는 2001년까지 9개소, 관광농원은 1984년부터 2001년까지 334개소가 설치 운영되고 있다. 민박마을은 2001년까지 275개소, 2002년에 10개소 등 총 285개소가 조성되었다.

〈표 2〉 농촌관광 및 휴양자원 개발사업 현황

(단위 : 개소, 백만원)

연 도	녹색농촌체험마을조성		휴양단지		관광농원		민박마을	
	마을수	지원액	지구수	지원액	지구수	지원액	지구수	지원액
2001년까지	-	-	9	16,600	352	123,380	275	26,386
2002년	18	1,800	-	-	-	-	10	900
계	18	1,800	9	16,600	334	123,380	285	27,286
2003년(P)	26	2,600	-	-	-	-	-	-

주 : 녹색농촌체험마을조성(2002년부터)은 국고보조 지원, 휴양단지(1989~2000년)와 관광농원(1984~2001년), 민박마을(1991~2002년)은 국고융자.

자료 : 농림부, 「농림업주요통계」, 2003.

## 2. 농촌진흥청의 전통테마마을

농촌진흥청이 추진하고 있는 전통테마마을 조성사업의 목적은 우선, 농촌의 이미지를 살린 전통지식 및 생활풍습을 발굴·전승하고 자연과 조화로운 농촌생활환경을 조성하는 데에 있다. 그리고 농업 및 농촌 체험학습과 농가숙박 및 농산물 직거래 등을 통해 농촌생활을 활성화하고 도·농문화 교류를 촉진시키며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이다.

사업내용으로서, 하드웨어 측면과 소프트웨어 측면으로 나누어 추진되고 있다. 먼저, 하드웨어 측면으로는 농업·농촌체험(고유테마 체험·학습 프로그램 개발, 해설판 등, 농특산물 생산·수확·가공·판매시설, 지역문화 체험시설 및 기자재), 종합안내센터(예약, 신청, 각종 문의), 마을환경 정비(농촌답고 정다운 마을환경, 쉼터, 놀이터, 주차장 등), 숙박시설(화장실, 샤워시설, 침구, 식기 등), 편의시설(전화, 컴퓨터 등) 등이 있다.

그리고 소프트웨어 측면은 전문가 컨설팅(고유테마 발굴, 프로그램 개발·매뉴얼 작성-계절별, 기간별, 우천시 등), 마을별 7거리 자원 발굴(알거리, 볼거리, 배울거리, 놀거리, 먹거리, 살거리, 쉴거리), 마을주민 및 리더교육(경영·관리기법, 프로그램운영방법, 손님맞이, 서비스 등), 홍보 및 마케팅(인쇄물, 홈페이지 제작·관리, 소비자단체·대중매체 활용), 마을고유 캐릭터상품 개발 등이다.

## 3. 환경부의 자연생태우수마을

환경부는 2001년부터 자연환경이 잘 보전되어 있거나, 주민들의 노력에 의해 환경 친화적으로 조성된 자연생태우수마을과 훼손된 자연생태계를 성공적으로 복원한 복원우수사례

를 발굴 선정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즉, 20호 정도에서 50호 정도의 마을 단위로 '보전'이 잘된 자연생태우수마을(보전가치가 큰 자연마을)과 '조성'이 잘된 자연생태우수마을(주민과 합심하여 생태적으로 우수하게 조성된 마을)을 선정하고 있다.

구체적인 선정 기준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지역 자연환경 여건 및 경관 조건이다. 즉 자연환경(산, 하천, 바다 등)이 잘 보전된 여건, 생물다양성(멸종위기 동식물, 철새도래지 등) 정도,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독특한 경관 유무, 건축물이나 취락구조 등이 주변경관과의 조화 유지 여부 등 조건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다만 상업화 또는 도시화, 관광지화된 마을은 신청대상에서 배제하고 있다.

둘째, 지역 문화 및 주민활동 조건을 두고 있다. 예컨대 자연보전과 관련된 축제(예컨대 연어축제 등)가 계승·창조되는 곳인가, 주민들이 지역 생태계 및 경관과 전통문화의 보전과 관련된 활동을 하고 있는가 등이다.

셋째, 지역 생태계의 보전 노력을 조건으로 두고 있다. 예컨대 기존 지형 및 수림대 활용과 환경친화형 토지이용, 환경친화적 마을 조성, 유기농법이나 생활쓰레기 퇴비화 등 자원순환형 생활양식, 공동 녹지 공간 확보와 소생물권 조성 등 생태계보전, 지역주민 활동 프로그램과 지역 환경정비 활동 등 지역주민 활동 등이다.

환경부의 자연생태우수마을 사업의 경우에 직접적인 재정지원이 없는 대신, 선정된 지역에 대한 인센티브로서 환경부의 환경기초시설, 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 설치 등 국고보조사업 대상을 선정할 때 우선권을 부여하고 있다. 또한 지역주민의 소득과 연계될 수 있는 도시민의 생태탐방을 활성화하기 위한 예산과 행정적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 4. 행정자치부의 아름답마을가꾸기

행정자치부는 농어촌지역의 건강한 자연환경과 우리 고유의 전통문화가 잘 보존된 21세기 한국농촌의 새로운 비전(vision)을 제시한다는 취지 하에 아름답마을가꾸기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그 기본목표는 세 가지인 바, 첫째는 도별로 1개 테마마을(9개 마을)을 선정하여 성공위주로 추진한다. 둘째, 푸른 환경과 도시적 편의가 조화된 자연친화적 농촌을 조성한다. 셋째, 높은 소득과 정이 살아 있는 건강한 지역공동체를 재건한다는 것이다.

추진방향은 먼저, 지역적 특성에 맞는 테마별로 주민 스스로 수립한 마을계획을 선정하여 시범 추진하는 것이다. 그리고 지역의 지도자가 있고 주민의 자발적 참여와 열의가 높은 마을로서, 전통문화가 계승된 Eco-tour, Green-tour마을로 육성이 가능한 성공 잠재력이 높은 마을을 선정한다. 또한 쾌적한 자연, 생태공간을 활용하여 자연친화적 농촌 편

의시설을 정비하고 아름다운 농촌만들기 경연 등 주민자율 정신 운동을 병행하여 추진하고 있다. 이 때 지역주민이 사업추진의 주체로 참여하고 정부는 주민자율 추진을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하며, 학계전문가로 구성된 정책자문단을 설치하여 개발계획의 수립을 지원하고 있다.

한편 추진방법으로서는 계획단계와 집행단계, 사후관리운영 단계로 구분하여 마을주민과 지방자치단체가 역할을 분담하는 것이다(〈표 3〉 참조). 그런데 기본적으로 지역주민공동체가 마을특성에 맞는 테마를 선택하여 개발방향<sup>2)</sup>을 설정하여야 한다.

〈표 3〉 이름마을가꾸기의 추진방법

단계별	마을주민	지방자치단체
계획단계	○자율추진협의회 구성 및 마을가꾸기 계획수립	○시군자문단 구성, 사업계획 검토 및 계획수립 지원
집행단계	○주택·담장개량 등 사유시설 개량사업 추진 ○특산물 개발, 판매망 개척 등 소득원 증대사업 시행	○도로, 정보인프라 등 공공기반 시설사업 추진 ○농림부 등 타 부처의 중앙지원 사업 연계지원
관리운영	○환경친화적 마을정비, 농특산물 지속적 판매확충 등 마을의 유지 발전	○대상마을의 발전을 지속시키기 위한 행정지원 실시 ○자문단을 통한 추진상황 평가, Feed Back

자료 : 행정자치부

대상마을의 유형은 다음과 같으며, 도별 테마유형이 가급적 중복되지 않도록 조정하고 있다.

첫째, 시멘트가 없는 전통가옥과 전래 민속문화가 보존되어 옛 농촌의 정취를 느낄 수 있는 마을이다.

둘째, 역사와 소설 등의 배경장소가 되었거나 풍부한 전설이나 설화 등이 전래되어 관광자원화가 용이한 마을이다.

셋째, 고유의 지역특산물이나 관광자원, 청정자연환경 등 높은 개발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는 마을 등이다.

2) 지역개발 시 흙, 돌, 싸리 등 지역에서 생산되는 친자연적 자재를 사용하여야 함.

### Ⅲ. 녹색농촌 조성사업에 대한 평가 및 정책과제

농림부는 이미 1984년부터 관광농원 개발사업과 1989년부터는 농어촌휴양단지 개발, 1991년부터 민박마을 조성 등을 추진해 왔다. 그런데 도시소비자의 농촌관광에 대한 인식 및 수요부족, 정부의 농촌관광에 대한 개념의 불명확성과 정책방향 및 목표의 비현실성, 초기 시설투자의 과다와 운영주체의 불분명 등으로 인해 큰 성과를 거두지 못한 실정이다. 특히 관광농원의 경우 상당수가 부실화되어 휴·폐업 또는 도로변 식당으로 변질되었다. 또 일부 민박마을은 인근 관광지나 유원지를 방문하는 도시민을 위한 저급 숙박업으로 인식되고 있다.

또한 농촌 관광자원 개발은 농촌지역의 자연환경 및 생태적 조건과 지역의 독자적인 특색을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였으며 시설공급에 치중한 편이었다. 또한 사업추진 방식도 중앙집권적 및 획일적이었고 농촌주민이 실질적 주체가 되지 못하였으며, 농촌지역 주민과 도시민간의 지속적인 교류를 위한 네트워크도 확보하지 못한 실정이었다. 그러나 이를 통해 조성된 물리적 시설은 농촌관광을 활성화할 수 있는 인프라 역할을 하고, 그 동안 축적된 경영 노하우, 조직, 교육 홍보실적 등 기반확충에 기여하였다고 평가되고 있다.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각 부처는 녹색농촌 조성사업과 관련된 정책사업을 부처별로 각각 추진하고 있다. 그런데 이 사업들은 추진방식과 사업목적이 비슷하기 때문에 중복성 시비가 있을 수 있으나 장점이 더 많은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예컨대 여러 부처가 공모방식에 의해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주민자율의 사업추진방식을 빠르게 확산시킬 수 있다는 점이다. 또한 농촌의 관광소득 관련 사업을 위한 기반조성을 가속화시키는 기능을 하고 있다. 그리고 각 부처의 장점을 살려 나름대로 사업을 차별화 할 수 있을 것<sup>3)</sup>이라는 점이다. 예컨대 각 부처의 사업을 비교해 보면, 환경부의 자연생태우수마을 사업과 행정자치부의 아름마을가꾸기 사업은 농촌지역의 친환경적 유지와 자연생태의 보전, 전통 및 민속자원의 계승이라는 측면에 초점이 두어져 있다. 그리고 농림부의 녹색농촌체험마을 조성사업과 농촌진흥청의 전통테마마을 사업은 농가소득 증대를 위한 친환경적 농촌개발에 중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지방화 시대에 있어, 농촌지역 개발방향은 지역의 특성에 부합되는 농촌지역의 활성화 및 지역농업의 발전을 목표로 지역중심적, 탄력적인 체계로 추진되어야 한다. 즉 지역의 자연 환경적 및 전통 문화적 특성에 부합되고, 지역 내에서 인간 및 자연과 산업의 조화라는 원칙 하에 추진하여야 한다. 따라서 현재 시행 중인 지자체 및 민간의 자율적이고 주도적인 사업방식은 녹색농촌 조성사업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3) 박시현·송미령(2002).



녹색농촌 조성사업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적 과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관련 법 및 규정을 제정하거나 정비하여야 한다. 예컨대 농어촌복지 및 지역개발에 관한 법률에 농촌관광마을 및 도·농교류 활성화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야 한다. 또한 농어촌정비법의 생활환경개선과 생산기반정비 사업을 추진할 때 경관정비 조항을 신설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농촌경관보전 노력을 명시하는 것이다. 즉 하천정비와 농촌도로, 각종 농업 및 농촌관련 개발사업 시 경관과 자연환경을 해치지 않는 사업시행<sup>4)</sup> 기준을 정하여야 한다. 또는 농촌지역 활성화를 위한 마을만들기, 체험, 교류 등에 대한 지원법률을 새롭게 제정하는 방안도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현실적인 과제로서, 농촌관광사업의 일환으로 소규모 음식물 판매 및 숙박행위에 대한 시설 기준의 완화가 필요하다. 그리고 이러한 사업을 소득세 감면대상 부업으로 규정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녹색농촌마을에 대한 전국적 홍보와 마을간 정보교환을 위한 네트워크의 구축을 추진하여야 한다. 즉, 포털사이트의 개설, 녹색농촌마을간 자체 모임 조직의 결성(협의회, 연합회, 협회 등)을 주선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이러한 포털사이트를 통해 전국의 녹색농촌의 소재지와 특성 등을 소개함으로써, 소비자에 대한 정보 제공과 선택의 여지를 넓혀줄 수 있다. 이 사이트를 통해 사전에 예약할 수 있는 예약시스템도 갖출 필요성이 있다.

셋째, 녹색농촌마을의 활성화를 위한 기반시설을 마련하고 농촌경관을 복원 정비하여야 한다. 진입의 편리성을 위해 도로 및 농로, 주차장 등을 정비하여야 한다. 그러나 가장 기본적으로 중요한 것은 주변 환경을 자연 및 환경친화적이며 농촌적으로 정비하여 자연환경을 최대한 살리는 개발방향이여야 한다. 즉 인위적이고 도시적인 특성을 가진 자재(예컨대 콘크리트 등 도시를 연상시키는 회색 자재)의 사용을 금지하고, 자연스럽고 농촌다운 시설과 경관으로 개발 또는 복원되는 방향이어야 한다.

넷째, 정책사업 투자의 내실화를 기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명확한 조직적 주체를 설정하고 사전실사를 철저히 하여 실질적인 마을 공동 운영주체를 중심으로 사업이 진행되도록 하여야 한다. 사업신청 명의만 공동으로 하고, 실질적으로는 한 두 사람이 사업주체가 되면 과거의 실패와 부실을 반복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또한 시설 공급 뿐 아니라 교육 훈련을 주선하고, 컨설팅 전문가의 배정을 의무화하여야 한다. 그리하여 설계 및 계획수립 단계에서부터 실제 운영 중에 발생하는 문제점까지 해결해 갈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사후의 주기적 점검도 필수적이다.

다섯째, 녹색농촌 조성사업의 지역범위는 마을단위→면단위→군단위로 점진적으로 확대될 필요성이 있다. 그렇게 함으로써 각 마을의 특징이 조화된 다양한 자연 환경 및 농촌경관과 농촌체험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또한 친환경농업은 지역 농업자원이 유기적으로

4) 최도일(2003).

순환되는 농업시스템으로 발전되어야 한다. 즉 지역 내의 유희자원과 부산물 자원의 원활한 순환체계<sup>5)</sup>를 확립함으로써 친환경농업 지역으로서의 녹색농촌조성을 위한 산업기반을 완전하게 구축할 수 있다

여섯째, 친환경 유기농산물의 학교급식을 위한 학교급식법 조례의 제정이 필요하다. 이는 친환경 유기농산물의 대량소비 뿐 아니라, 성장 발육이 활발한 어린학생의 육체적인 건강과 정신적인 건전성에도 큰 의미가 있기 때문이다. 또한 이러한 친환경농산물의 급식을 통해, 학생들의 친환경 유기농업 및 녹색농촌마을과 도·농교류의 필요성 및 중요성 등에 대한 인식 수준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 IV. 녹색농촌 조성사업의 발전방향

녹색농촌 조성사업의 발전방향은 기본적으로 친환경 유기농산물을 매개로 하여 생산자와 소비자가 자생적으로 추진해온 도·농교류의 경험에서 찾아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녹색농촌 조성사업은 도시민과의 지속적인 교류를 통해 수요를 창출하고 확대함으로써 그 성과를 거둘 수 있기 때문이다. 도시와 농촌은 동전의 앞뒷면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바, 도·농 생활공동체 형성의 방향이 가장 이상적일 것이라고 생각된다.

첫째, 녹색농촌 조성사업의 다섯 가지 기본적인 구성요소는 마을주민의 합의 도출, 마을의 조직화, 지도력을 갖춘 지도자, 지역의 특색을 살릴 수 있는 각종 부존자원 즉 농업자원과 자연환경 및 생태자원, 전통문화자원 등의 최대한 활용, 마을단위 친환경농업의 실시 등이라고 할 수 있다. 마을구성원 전체의 합의를 기반으로 하여 마을조직이 주체가 되어 마을만들기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그리하여 도시민에게 안전한 식품과 쾌적하고 포근하며 정겨운 휴양지, 농촌문화 및 환경과 전통에 대한 교육장소 등을 제공하는 것이다.

둘째, 친환경농업이 기반이 되어야 한다. 녹색농촌마을은 도시민에게 볼거리, 놀거리, 먹거리를 제공함으로써 그 만족도를 높일 수 있다. 볼거리로서는 자연환경 및 농촌경관과 전통 문화관광 자원 등이 있고, 놀거리는 자연친화적인 휴양 및 휴식처, 농업 및 농촌체험장, 자연학습장 등이 있다. 그런데 먹거리로는 친환경농산물을 원료로 한 안전한 식품이나 그

5) 현재 친환경농업 지역은 경종농업 위주로 조성되어 있다. 그러나 지역 내 유기순환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유기축산의 도입이 필요하다. 유기순환 시스템의 개요는 다음과 같다. 우선 지역 내 유희자원을 이용하여 경종부문에 신규작물 도입을 위한 토지를 공급하고, 축산부문에는 사료포와 조사료원(산야초 등)을 공급하는 것이다. 그리고 경종부문에서는 축산부문에 볏짚과 각종 조사료원을 공급하고 축산부문은 경종부문에 축분을 이용한 유기퇴비를 공급한다(김호, 2003a).

지역의 전통식품 등이 제공되어야 한다. 최근들어 급속히 증가되고 있는 친환경 유기농산물의 수요와 도시민의 유기농업에 대한 관심에 부응함으로써, 녹색농촌 조성사업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녹색농촌마을은 도시민의 수요를 연중 유지 확대시킬 수 있도록 운영되어야 한다. 주기적인 이벤트를 개최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홍보하며, 안전한 농산물 및 음식의 판매와 안락한 숙박 등 휴식처가 제공되어야 한다. 가장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도·농 생활공동체의 형성을 통해 도시민이 지속적으로 방문하고 교류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고정회원제를 도입하고, 도시와 농촌간 농산물의 항시적 주문 공급체계를 형성한다. 그리고 계절적(특히 겨울철)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겨울철에는 각종 녹비작물을 심어 아름답고 푸른 들을 유지하며, 겨울철에 즐길 수 있는 놀이행사를 개발하여야 한다.

한편 녹색농촌 조성사업의 발전을 위해 소비자·시민단체가 수행해야 할 역할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은 다섯 가지가 있다.

첫째, 녹색농촌 조성사업 사업을 위해 농촌을 조직화하고 지도자를 발굴하여 지도력을 육성하여야 한다. 도시민의 관점에서 농촌주민의 자발성과 의욕을 고취하고 조직화할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하는 것이다. 또한 농촌지역은 비교적 교육 훈련의 기회가 부족한 실정임을 감안하여, 지도자 및 지도력 배양을 위한 기회도 제공하는 것이다.

둘째, 도시 소비자의 의식변화를 주도하여야 한다. 도시민이 가지고 있는 인간중심적 환경 개념에서 생태중심적 사고방식으로서의 전환이 필요하다. 인간이란 모든 생명체(생태계)의 한 구성요소일 뿐이며, 인간의 물질적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해 다른 생명체를 손상시키거나 제거할 권리가 없음을 각성시켜야 한다. 또한 소비자가 농산물 특히 친환경농산물이 단순한 식품이 아닌 농촌의 문화와 전통, 생명, 정신, 자연이 함유된 종합적인 또 다른 생명체임을 인식하도록 하고 도시생활에서의 생태친화적·환경친화적 생활을 실천하는 자세를 갖추게 할 필요성이 있다.

셋째, 이러한 의식 변화를 기반으로 녹색농촌과의 교류를 위해 소비자를 조직화하여야 한다. 농촌과의 공생 공존, 협동의 관계를 구축하기 위한 도시에서의 조직화는 필수적이다. 자연과 인간, 인간과 인간, 인간과 사회와의 관계에서 그리고 도시와 농촌의 관계에 있어서 각자의 독자성이 존중되면서 대등하고 자유로운 관계를 기본으로 상호 풍요로운 세계를 창출하는 도·농 생활공동체 운동의 기초조직이 형성되어야 하는 것이다. 이러한 소비자조직으로서, 현재 친환경 유기농산물 유통을 담당하고 있는 한살림이나 여성민우회 등 생활협동조합 등이 있다.

넷째, 도·농교류의 알선 및 지속적인 관계 형성과 친환경 유기농산물의 소비확대 운동을 전개하여야 한다. 우선 도·농간 유기적인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친환경 유기농산물의 직거래를 통해 지속적인 교류관계를 형성시키는 일이다. 친환경농산물의 직거래는 생산자와 소비자가 일상생활 중에 다양하고 항상적으로 교류하고 유대하는 방식의 유통이다. 그러나 현대사회에서 이러한 방식을 모든 소비자가 실천하는 데에는 현실적인 한계가 있다. 따라서 소비자에 대한 교육과 홍보를 강화하여 의식 및 실천면에서 변화된 자세를 갖도록 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이것이 친환경농산물의 소비로 연결되도록 하여야 한다.

## V. 결 론

2001년부터 농림부와 농촌진흥청, 환경부, 행정자치부에서는 각각 녹색농촌 조성사업과 관련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사업은 주민자치, 지역자율의 원칙에 의해 추진되어야 하며 농촌지역의 자연환경을 최대한 살리는 친환경적인 방향이어야 한다. 왜냐하면 도시민의 농촌에 대한 수요는 농촌이 가지고 있는 포근함과 정겨움 등 농촌다움에서 비롯되기 때문이다. 또한 산업적 기반은 농촌자연의 환경친화성에 부응되는 영농방식인 친환경농업이어야 한다. 그리고 녹색농촌 경영에 있어 지속성을 가질 수 있는 방법은 친환경 유기농산물을 매개로 한 생산자와 소비자의 도·농생활공동체 운동에서 찾아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1. 김 호. 2003a. 지역농협단위 친환경농업의 추진사례 연구. 한국유기농업학회지 11(3).
2. 김 호. 2003b. 녹색농촌 마을만들기를 위한 정책과제와 시민운동의 방향. YMCA농업정책토론회 생태적 지역공동체로서의 농촌운동을 위한 방향과 과제. 서울YMCA양곡은행.
3. 농특위. 2002. 농어업·농어촌의 새로운 활로.
4. 박시현·송미령. 2002. 농어촌관광 발전을 위한 정책과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5. 서울YMCA양곡은행사무국. 2003. 2002년 양곡은행사업 경과 및 2003년 사업계획. 환경농업과 녹색농촌만들기로 희망을 일구는 YMCA운동. 서울YMCA.
6. 송미령. 2003. 그린투어리즘 마을의 경영전략. 한국농업정책학회 2003 하계심포지엄 농촌활성화를 위한 그린투어리즘 추진방향. 한국농업정책학회.

7. 유덕기·함병은. 2003. 환경관광농업 활성화를 위한 수요자 선호도 연구. 한국유기농업 학회지 11(3).
8. 임경수. 2003. 도시와 농촌이 함께 하는 녹색농촌마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환경농업과 녹색농촌만들기로 희망을 일구는 YMCA운동. 서울YMCA.
9. 정기환. 2001. 농촌지역활성화를 위한 그린투어리즘 정책의 발전방향. 농촌경제 24(2). 한국농촌경제연구원.
10. 최도일. 2003. 정부의 그린투어리즘 추진현황과 정책방향. 한국농업정책학회 2003 하계 심포지엄 농촌활성화를 위한 그린투어리즘 추진방향.
11. 농림부·농촌진흥청·환경부·행정자치부, “홈페이지”.
12. 井上和衛 外. 1999. 地域經營型グリーン・ツーリズム. 都市文化社.